

Vol. 10 | 2020 SUMMER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언택트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말하다

Class Know-How

“e학습터에서 과제를 수행,
아이들 모습에 감동했어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은 에듀테크!

Hot EduTech

“수업에 필요한 영상만 콕콕, 쌤플하세요”

Interview & People

“교사의 역할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입니다”

Teacher Life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0년 티처빌 회원등급제 도입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그냥, 어디든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고 무작정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지금,
그냥 그러고 싶다. 하고 말아버릴 수밖에 없는
당연함이 그리워지는 요즘,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이전의 시절들이 그립다.



사진. 정혜란 서울금옥초등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구름비행기

CONTENTS

Vol.10 | 2020 SUMMER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0년 7월 6일 통권 제10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a.com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Zoom in Focus

- 06 언택트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말하다
• 정영식
- 10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
학교 공간은 변해도 의미는 더 소중해질 것
• 조기성

Class Know-How

- 12 “e학습터에서 과제를 수행,
아이들 모습에 감동했어요” • 나승빈
- 16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 • 손지선
- 20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은 에듀테크!
• 이제창
- 22 언어를 바꾸면 시선이 바뀌고
해법도 달라진다 • 김 현
- 26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 독서토론 • 유현심

Hot EduTech

- 30 “온라인으로 메이커 수업을?
경북초에선 진짜로 해요!” • 황중원
- 32 “수업에 필요한 영상만 콕콕, 샘플하세요”
• 심준보





Interview & People

- 34 “교사의 역할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입니다”
• 신민철
- 38 코로나19로 변한 교육환경,
미래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이은상
- 42 체계적인 성교육,
밝음의 ‘성문화’ 지향해야 합니다 • 이재정

Teacherville News

- 46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50 2020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2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Teache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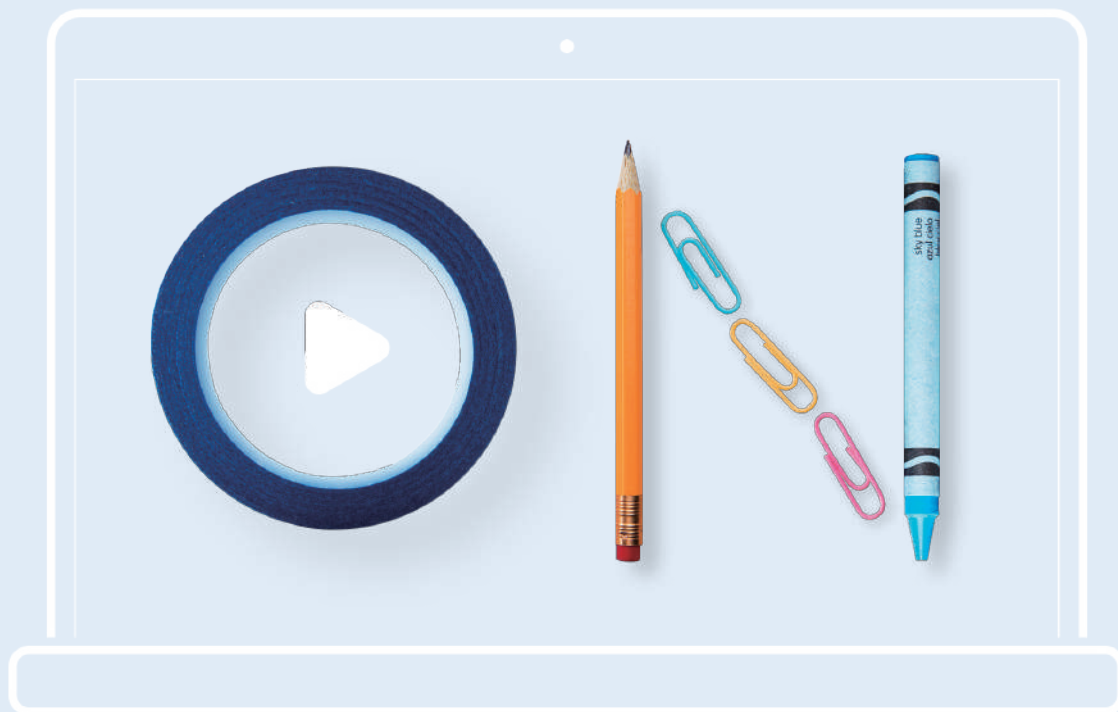
- 54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 서준호
- 56 “넌 마치 별뿔별처럼
나의 우주를 가로질러와” • 노원준

Book

- 60 전래동화 컬러링북, 세계명작 컬러링북 /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

Cartoon

- 62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 라이프 • 송정섭



언택트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말하다

무중단 교육을 위한 원격 수업 상시 체제 도입

글.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그동안 원격 수업은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이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필수 교육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원격 수업은 비상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래 교육 환경에서는 원격 수업일지라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질병방역’뿐만 아니라 무중단 교육을 위한 ‘교육방역’이 가능하도록 에듀테크를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그리고 온라인 개학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2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최악으로 유행할 것이라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5월 29일 현재 전 세계의 감염자 수는 57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35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3월 22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발표했고, 교육부 역시 이에 부응하고자 4월 9일부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현시점(5. 29)에도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11,402명이고, 사망자 수도 269명에 달해 많은 학부모가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콘택트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급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去者日疎)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람과의 면대면 접촉을 중요시하는 콘택트(contact) 사회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추진되면서 비대면(untact)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발표했다. 즉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일을 처리하는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약력 정영식

- 現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現 교육부 국정 디지털교과서 심의위원
- 現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심의위원
- 現 TTA e-Publishing(PG608) 위원
- 前 하남초등학교 교사
- 저서 『소프트웨어 교육론』 외 다수

원격 수업, 국가재난훈련의 하나로 삼아 언제든 가능해야

첫째, 원격 수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모든 교사와 학생이 원격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감염병은 아니어도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교 수업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수업을 국가재난훈련의 하나로 삼아 언제든지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유·무선 인터넷망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소유한 스마트기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과목에 대한 교육용 콘텐츠를 민간 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사, 에듀테크 활용한 수업 가능하도록 역량 키워야

둘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 교육이 현실화될 것이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원격 수업에 에듀테크가 접목되면서 비접촉·비대면 교육이 오히려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원격 수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각종 로그 기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나 진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분석 기술이 원격 수업에 도입이 된다면, 출제나 채점과 같은 교사의 평가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준별 맞춤 교육이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에듀테크 기업이 학



온라인상에서 일을
처리하는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교에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블렌디드 교육의 일상화 준비해야

셋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 블렌디드 교육이 일상화될 것이다. 등교 수업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 수급과 제한된 학교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등교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내 아이에게 최적화된 수준별 맞춤 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이러한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블렌디드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등교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교실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다른 교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미러링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학생은 옆교실이 아닌 집이나 병원에서 수강해야 하므로 블렌디드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원격에 있는 학생들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 기술을 익히고, 효과적인 블렌디드 교수법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교원의 역량 계발이 필요하다.

디지털 안전 교육과 정서적 안정 교육 강화해야

넷째, ‘디지털 안전 교육’과 ‘정서적 안정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면대면 교육보다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학생은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교사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디지털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수업에 따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디지털 세계에서 안전하게 교수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 학교 공간은 변해도 의미는 더 소중한 것

글. 조기성 (사)스마트교육학회 회장, 계성초등학교 선생님

언택트 시대, 학교는 사회와 관계를 배워가는 곳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왔다고 한다.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환경이 바뀌고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들까지 가정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아이들은 인간(人間)으로 성장하고 있다.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도 겪고 해결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협업하면서 살고 있다. 성인(成人)들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고 협업할 수 있으므로 언택트가 가능할 수 있다. 이미 대면에서 이어진 관계가 비대면에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최초의 사회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학교라는 사회에서 사회성을 지속적으로 길러 나간다. K-12라고 불리는 초·중·고 12년의 학교 생활은 학습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느끼고 해결하는 시기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의 모습은 변할지 몰라도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부모의 옆에 자녀가 함께 있다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성인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어린 자녀는 안전한 공간에서 사회를 배우고 관계를 배워야 하는데, 그 공간이 학교인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 축적된 학습 데이터로 진로까지 제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교에 온라인 학습이 들어온다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같은 교실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수준에 맞는 학습을 온라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된다. 수학이나 언어학습의 경우 모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방향 강의식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들어오면 다양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이 도입될 수 있다. 학생들의 데이터를 통해 각각의 관심과 흥미가 분석이 되면 어떤 분야에 더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관심과 흥미를 찾는 데이터가 쌓이고 함께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중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곧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문 연구를 위해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다양한 전문계 고등학교(현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하고 직업 교육을 받은 후 고등학교를 졸업해 곧바로 직업 세계에 뛰어들 수 있다.

스마트 교육에서의 교사 역할

- 학생들을 이해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
-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친구
-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
- 학생들과 평생 소통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멘토
-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페이스 메이커



이렇게 온라인 학습과 함께하는 블렌디드 러닝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학습에 대한 부족함이 생겼을 때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결국 현재의 대학중심 교육이 직업중심·업무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적성과 흥미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은 평생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또 직업 재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고, 진로를 제시하는 내비게이션

위 그림은 2012년 교육기부박람회에서 스마트교육의 이해 및 사례 소개로 강연할 때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주고 괜히 빙 둘러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AI가 들어오면 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드는 직업의 예가 의사다. 예전의 의사는 혼자서 모든 종류의 병을 다뤄야 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의사들은 내과·외과 등의 전문의가 되었고, 전문의 안에서도 각각의 전문 분야로 나뉘게 되었다. 청진기뿐만 아니라 MRI를 통해 내부의 장기 하나 하나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로봇을 통해 혈관 속까지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며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진 것처럼 교육도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기술이 발달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적성과 흥미, 소질이 분석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행복한 미래 교육을 꿈꾸며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다. 기회가 찾아왔다고 너무 급하게 변하려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사회 인식부터 바뀌어나가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미래 교육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 설레는 요즘이다. ㉠



약력 조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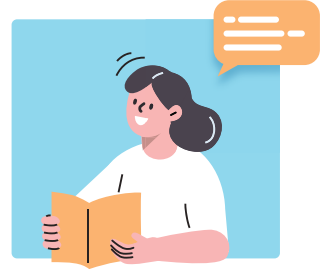
- 現 계성초등학교 교사
- 現 (사)스마트교육학회 회장
- 마이크로소프트 MICE 및 쇼케이스 스킴 담당
- 칸아카데미 자문, 구글 G-SUITE FOR EDUCATION 그룹 운영, 다수 에듀테크 기업 자문
-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연구 집필
- 교육부 첨단미래학교 자문단
- 교육부 국정사회과 디지털교과서 심의위원
- 교육부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정책자문

[초등]

"e학습터에서 과제를 수행, 아이들 모습에 감동했어요"



글. 나승빈 광주서초등학교 선생님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가정 내 태블릿PC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부터 그 많은 접속자를 서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왔다. 그런 걱정과 불안의 시선 속에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지만 막상 온라인 개학 날이 되자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 덤덤히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는 온라인 수업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소통, 학부모와의 소통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까지 깨달았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온라인 수업 시작 전에 부모교육과 사회·학문적 기술 연습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3월 첫날부터 하는 '2주 첫 만남 프로젝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미리 생성해둔 학급 밴드에 작년에 선생님들이 파악한 연락처를 활용해 학부모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개학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했다. 부모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사회·학문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더불어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시리즈를 교실과 집에서 촬영해서 가정에 제공했다.



약력 나승빈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활동지·도구·재료 학습 꾸러미로 나눠줘

이후 온라인 개학이 시작될 것을 알고 기존에 하던 부모교육, 사회·학문적 기술과 놀이 이외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우리 반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것(1/3 정도 참여 가능)을 알게 되었고, 콘텐츠 제공형(교과서 활용, 집에 있는 재료,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학

- 現 광주서초등학교 교사
- 전국 유초·중등 자격 연수 강사
- 티처빌, 아이스크림 연수 강사
- 저서 『나승빈 선생님의 전학년 수업놀이 2』 외 다수
- 교사 성장 공동체 빈 스쿨 운영

습 꾸러미로 제공)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주 정도 밴드에 들어와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e학습터에 올려진 콘텐츠를 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연습했다. 3월 첫날부터 매일 연락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는데, 이때 막연히 '언젠가 개학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참 많다는 것도 알았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조력이 어렵거나 가정 상황상 오후, 저녁에 들어와서 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9시부터 바로 가능한 1/3, 오후에 가능한 1/3, 저녁 1/3로 분포되어 있고, 양질의 콘텐츠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직접 만들어서 보낸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온라인 개학 및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업을 촬영했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활동지도구·자료 등을 학교에서 만든 천 가방에 넣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학습 꾸러미로 나눠 주었다.

철저한 준비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의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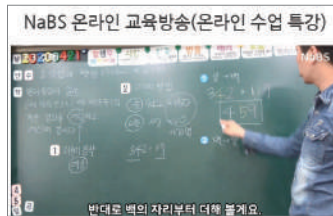
온라인 개학 날, 이상하리만큼 특별할 것 없이 평소와 같았다. 하던 대로 미리 e학습터에 자료를 올리고, 밴드에 안내한 것을 오전 1/3, 오후 1/3, 저녁 1/3해서 다음 날까지 100% 참여토록 했다. 콘텐츠에 대한 과제(미션)를 밴드 안내 글에 댓글로 올리고, 댓글이나 메시지 등으로 피드백했다.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독려하고, 조력자가 현실적으로 없는 아이들(3명)은 개인 연락(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학습을 안내 및 지도했다. 또 그 사이사이 더 나은 콘텐츠를 찾고, 최대한 아이들이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직접 수업을 하는 것과 유사)로 수업을 촬영하고, 자막 및 교과서 등을 이미지로 넣어서 편집했다.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는 수업은 10분 이내로 했는데, 그 이유는 쌍방향 피드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최소한으로 보고, 영상을 보는 중간이나 본 후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학년의 5반이 함께 준비하고, 서로 더 나은 자료 및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아이들의 과제 수행에 따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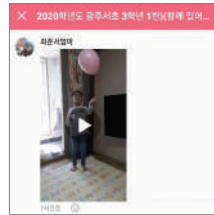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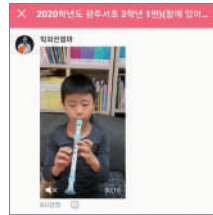
과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수업을 제외하고, 다음 주 수업까지 필요한 영상은 모두 촬영과 편집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9시가 되기도 전에 e학습터에 들어와서 과제를 수행하고, 너무나 멋지게 과제를 수행해서 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이 소중한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과정을 블로그에 남기고 있고, 이제 이 공간은 다른 선생님들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간단 계획 누적

블로그에 올리는 일일 수업 계획과 피드백, 선생님들에게 공유한 수업 촬영에 대한 이야기



밴드에 올라오는 미션 달성 피드백(하루에 많게는 100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숙제

수업장면을 직접 찍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훨씬 참여율(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과제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체감했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또 온라인 학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e학습터에 들어와서 출석 및 진도만 형식적으로 한다. 실제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나 교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인데 학습 환경이 더 좋지 않은 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쌍방향 수업 자체가 어렵고, 콘텐츠 제공 후 과제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업이 지닌 강점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승빈 선생님_블로그



나승빈 선생님_유튜브





현직 선생님과 티처몰이 기획한

요즘 공책 활용법



초등용

중등용



배움공책
- 매일매일 배움노트
- 제이커스 성장일기

오늘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하며 성장하는 "스스로 학습 정리" 대표 공책!



초등용

선생님!
이제 뭐해요?



다했어요 노트

자투리 시간을 더욱 알차게! 이제 뭐해요?
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때! 쯔 하고 보여주세요!

초등용

독서 완전 정복



책과 놀아요 노트

감상문만 쓰고 끝나는 독서록이 아닌 쉽고
재미있는 구성이라 책읽기의 재미를 찾아주세요!

초등
저학년

1-2학년에게 딱!
받아쓰기 공책!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연계

바르게 써요 노트

급수장이 들어있어 더욱 편리하며
초등 저학년에게 꼭 필요한 바른 글쓰기 노트!

only 티처몰

오직 티처몰에서만!
새로운 수업 공책!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
생각을 이미지화 시켜 표현하는
비주얼 씬킹 노트!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발표, 평가하며 성장해가는
토론공책!

비주얼
씬킹노트
-
토론공책

모든 교구가 한 곳에!
티처몰 바로가기



[중등]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

글. 손지선 양서중학교 선생님



코로나19로 삶은 물론 학교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개학이 계속 늦춰지다가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교사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이 필요하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알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그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12년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오며 터득한 꿀팁을 이 공간에 공유하고자 한다.

온라인 수업 꿀팁

1. 설문조사를 활용하자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과제를 건을 때 파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설문조사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설문조사의 경우 퀴즈로 만들 수 있어서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문제를 제출하고, 정답을 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한 답에 대한 피드백을 사전에 입력해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과제의 평균점수,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내용과 과제별 응답 현황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응답에 개별 피드백을 작성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파일 수백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 수합해야 하는 부담에서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다. 설문조사로 파일을 받을 수도 있어서 학생들의 과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한 부분, 어려웠던 부분, 질문을 적게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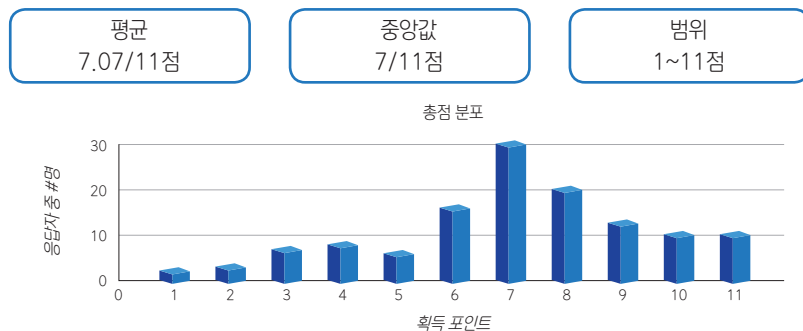


약력 손지선

- 現 양서중학교 영어교사
- 돌봄치유교실 운영진
- 유튜브 채널 '손쌤V' 운영
- 2018 영어교육 관련 유공교원 교육부 장관 표창
- 2015 개정교육과정 영어과 교과서 집필(동아출판)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면 이후 수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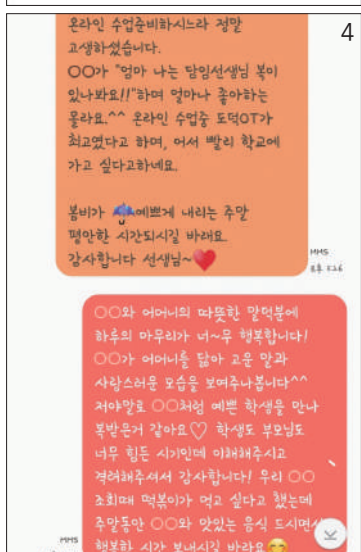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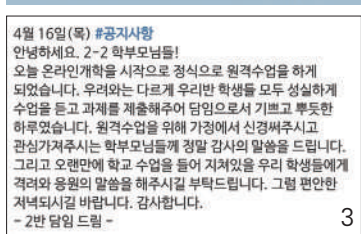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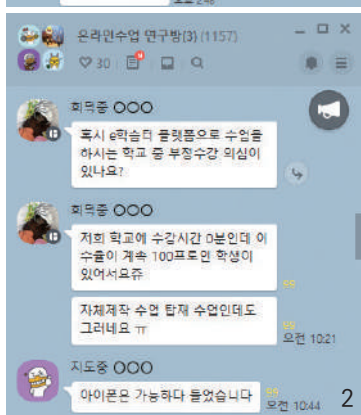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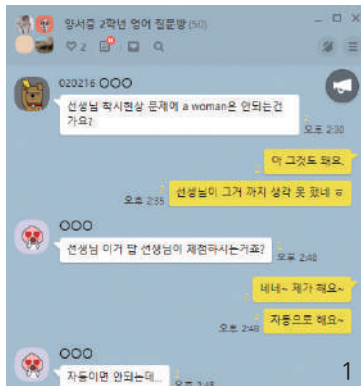
자주 놓치는 질문

질문	올바른 응답
3. 교과서 p.15에서 위 문장의 that이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찾아서 적으세요.	39/125
5. What is Subin's final goal?	50/125
6. 수빈이가 매일 노력하는 small goals는 무엇인지 교과서 p.16에서 찾아서 영어로 적으세요.	37/125
9. p.17에서 민수가 공부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쓰는 방법을 찾아서 영어로 적으세요.	29/125

평균 점수와 자주 틀리는 질문을 자동으로 분석해준다.

2. 학생과 온라인 학습방 운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다. 선생님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고, 담임교사는 개별 교과 교사에게 어떤 내용인지 문의해서 각 학생에게 일일이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담임교사도 자신의 교과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담임 반을 챙기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픈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SNS 서비스를 활용해 교과 교사가 질문방을 만들고, 그 링크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교과 교사에게 질문하고 해결하도록 하면 된다. 학생들은 바로 질문할 수 있고, 교과 교사도 학생들의 질문을 바로 해결해주고, 담임교사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온라인 수업 연구방을 통하여 집단지성 형성

처음 온라인 개학이 발표되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많은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았을 때, 온라인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그 링크를 전국의 교과별 단독방에 올리고 들어오라고 안내했다. 많은 선생님이 절박했는지, 오픈채팅방 최대 인원이 1,500명이었는데 불과 3~4시간 만에 다 찼다. 다음 날 2번방을 만들었는데 또 5시간 만에 채워지고, 3번방까지 만들어서 현재 방별로 1,100명에서 1,400명 정도의 교사들이 들어와 활발하게 의논하고 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조금씩 공유한다. 질문이 올라왔을 때, 답하면서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옆 동료 또는 이런 집단지성체를 찾아서 질문하고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4. 온라인 학부모방을 운영해 학부모와 굳건한 래포 형성

온라인 수업이 시작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사항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네이버밴드·카카오톡·클래스팅과 같은 SNS이다. 최근 학교의 필요를 반영해 출석 체크·라이브 수업 등 많은 기능이 출시돼서 교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 SNS의 기본 기능인 '소통'에 집중해서 그날그날의 수업, 과제, 진행 현황을 안내해주고 잘하는 학생의 경우 마음껏 칭찬해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만 몇 달 동안 있어서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럴 때 자녀를 칭찬하는 센스 있는 담임교사의 문자는 학부모에게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다가올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

온라인 수업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왔던 것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풀어낸다는 것을 염두에 둔

1. 온라인 학습방.
2. 온라인 수업 연구방.
- 3, 4. 칭찬문자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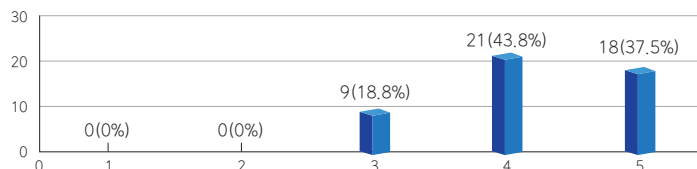
온라인 수업은
몇 번이든 반복할 수
있고, 학생 자신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몇 번이든 반복할 수 있고, 학생 자신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교실 속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쓴이의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해 많은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하는 영어 수업은 5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응답 48개



선생님과 했던 온라인 수업에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줄수록 다음 수업 준비할 때 도움이 돼요^^

응답 48개

온라인 수업을 하여 쌤과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미리 공부도 하여 좋았어요.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클래스룸으로 내주신 과제 스스로 하는 것도 좋았고요, 유튜브로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좋았어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해서 수업이 잘 이해된 것 같아요.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직접 youtube 라이브 방송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과제는 방법 영상까지 올려주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교사와 학생이 수업이라는 공동의 영역에서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또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수업이고 학급 경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추구하는 방향성(what)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방법과 매체(how)가 달라진 것이다. 온라인 수업 도구는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교사가 시간을 절약하고, 이렇게 절약된 시간은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할 부분, '수업 연구와 학급 경영'에 쓸 수 있도록 한다. ㉠

[고등]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은 에듀테크!

글. 이제창 영남공업고등학교 국어선생님

코로나19는 학교의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무너뜨려 버렸다. 매 교시를 알리던 종소리도, 오와 열을 맞추어 교탁과 칠판을 바라보던 책상도 사라져 버렸다. 대신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던 아이들의 방이 교실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던 시공간 상의 통제가 사라지자 교사가 가지고 있던 교육의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넘어가 버렸다. 지금부터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통제가 아닌, 오직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력도를 높인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이 남았다.

EBS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우리 학교에서 선택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EBS 온라인 클래스>였다. EBS는 우리 학교 말고도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마냥 EBS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EBS 강의를 중심으로 ‘도입-전개-정리-보충심화’의 수업 단계에 따라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는 글쓰기가 기획-총괄을 담당한 ‘중등 학교가자.com’에서 채택한 방식이기도 했다.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구글 설문이나 카훗, 클래스카드 같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연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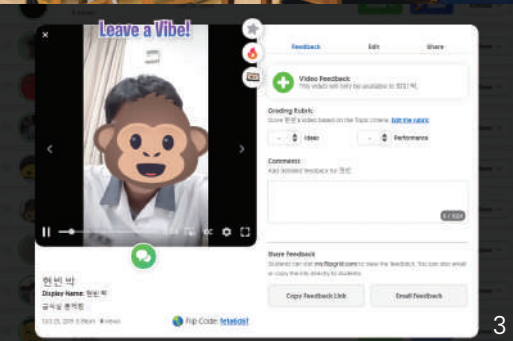
입학식도 치르지 못해 여전히 중학생으로 남아 있는 1학년들을 온라인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1학년 담임 선생님들 역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들의 수업을 독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기보다는 화상 플랫폼을 통해 직접 학습을 안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구글 행아웃 MEET은 구글의 인증을 받은 학교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데다 안정적이며, 구글 클래스룸과 연계할 때 접속 주소를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캘린더와 연동한 알람기능 또한 매우 편리했다. 여기에 멘티미터 사이트를 활용해 아이들과 레포를 형성했다. 이렇게 매시간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친분을 쌓으며 강의 이수 여부를 관리하니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때 구글 설문을 활용해 출석을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1



2



3

1. 쌍방향 질의응답이 필요할 때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다.
2.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크롬캐스트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의 소리 전송이 가능하다.



역력 이제 창

- 현 영남공업고등학교 국어교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듀테크 지원단
- 대구광역시교육청 독서인문교육 지원단
-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업평가 지원단
- 저서 『선생님이 똥대요』 『우리는 학생기자다』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 직접 수업을 꾸려나간다

온라인 개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개학 이후의 평가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제대로 치르려면 차라리 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MEET의 '발표 기능'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되 판서가 필요할 때는 파워포인트와 태블릿을 활용하고, 쌍방향 질의응답이 필요할 때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했다. 화이트보드 가 필요할 때는 아이캔노트를 활용했다. 최근에 추가된 '크롬캐스트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의 소리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했다. 온라인이다 보니 교과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구글 문서를 활용, 직접 디지털교과서를 제작해 활용하기도 했다.

학습자 중심 협동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강의식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 라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식 수업과 더불어 학습자 중심 협동 학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습자 중심 수업과 협동 학습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도구들을 활용했다. 학습과제의 링크 주소를 실시간 플랫폼의 채팅창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과제 수행을 안내했다.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생성하고 이를 구글 도구와 연계하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조별 학습지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조별 동시 작업도 가능했다. 구글 문서를 활용해 공동 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IL이나 e-NIE를 활용해 읽기 활동을 진행했다. pedlet이나 잼보드를 활용해 브레인라이팅이나 PMI 토론, 신호등 토론 같은 활동은 물론 플립그리드를 활용해 말하기, 듣기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에듀테크 도구들, 오프라인 상황에서 더 위력 발휘

지금까지 소개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해 준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개학 이후에도 이러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는 개별화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쉽게 하므로 수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뉴노멀 사회가 다가올 것이라 한다. 이것이 교육계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 선언한다면 그건 너무 무례한 일인 것일까? ①

언어를 바꾸면 시선이 바뀌고 해법도 달라진다

2020 교내 학폭법 개정, 새로운 매뉴얼과 회복적 생활교육

글. 김 현 신현고등학교 선생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교내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대신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 재량권을 부여했다. 변화의 흐름에 따라 지난 4월, 신현고등학교에서는 6회에 걸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관계회복 중심의 새로운 생활교육 패러다임 접근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구가 폐지되고 학교엔 조사전담기구만 존재한다. 이제 학교는 심의 결과로 소송에 시달리는 상황은 면할 수 있지만, 학교장 전결로 내부에서 종결할 사안과 교육지원청에 심의·의결을 이관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는 이



약력 김 현

• 現 신현고등학교 교사

전과 다른 점이 없으며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반면 어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을 경직된 절차로 진행했던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새로운 생활교육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신현고등학교, 중랑구 소재 서울형 혁신학교 3기 1년차 일반고)는 생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연수를 진행했고, 이와 함께 매월 학생연구모임(담임교사뿐 아니라 비담임 교사까지 결합한 통합적인 학생 생활교육 연구 모임)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달라진 학교폭력처리 매뉴얼과 새로운 생활교육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존중과 사랑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우리 학교에 맞는 생활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수

2020학년도 2월, 학교 안 직무연수 집중과정에서 즐거운학교의 신호승 진행자와 함께하는 3시간짜리 회복적 생활교육 맛보기 연수를 진행했다. 전 교사가 침묵과 경청의 힘을 임팩트 있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월 개학과 동시에 올해 상시과정을 열고 희망하는 교사들과 좀 더 제대로 배워 우리 학교에 적합한 생활교육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위축되고 거리 두기를 위해 등교 개학을 미루던 시간에 우리 학교

신현고등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프로그램

회차	주제	내용과 핵심 질문
1	교사 치유	- 공유하는 목적과 우리들의 약속 - 무엇이 교사를 치유하는가?
2	서클 대화	- 둘러앉아 이야기하기: 서클의 힘 - 우리 통하고 있나요?
3	회복적 서클 시연	- 갈등 전환의 마법 - 상대의 말에서 무엇을 들었나요?
4	회복적 서클 실습	- 갈등 전환 몸으로 새기기 - 나의 말은 온전히 들려지는가?
5	내면 서클	- 공동체 서클과 내면 서클의 연결 - 내 안의 어떤 면을 드러내는가?
6	학교 시스템 구축	- 해당 학교 회복적 시스템 디자인 & 실행 방안 도출 -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는 고민이 많았다. 학교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하고, 학생 없이 교사는 모두 출근하는 시기가 되자 우리는 학교 안에서 집합 연수를하기로 했다. 모두 9명의 교사가 참여해 3시간씩, 6회 걸쳐 총 18시간의 직무 연수를 진행했고, 연수 내용은 사진과 함께 정리해 모든 교사와 공유했다.(*앞페이지와 아래 표 참고)

회복적 정의에 기반을 둔 생활지도

1차 연수 내용 공유(2020. 04. 14)

우리 학교 9명의 선생님이 총 18시간(6회×3시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적합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개인 사정 등으로 연수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전체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용 공유를 통해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혀 소통과 협력 속에서 모든 교사가 함께하는 생활지도를 꿈꿔 봅니다.

1. 마음 열기: 자기소개

첫 시간이라 서로를 알아보는 활동을 먼저 했습니다. 옆 질문에 답해가는 방식인데 막상 답하려고 하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가요?’,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힘은 무엇인가요?’, ‘~임에도 여기에 온 이유가 있나요?’, ‘나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새로운 시선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만나고, 교육자로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본 정신이다.



기존 생활교육 체제 바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실행 방안 마련

연수에 참여한 9명의 교사는 18시간의 교육을 통해 많이 친밀해졌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생활교육 철학과 행동방식을 접하면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 훌륭한 진행자의 도움으로 우린 매회 연수가 힐링이고 명상이자 각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치는 시간이었다. 실제 발생한 학생 사안으로 토론할 때 우리가 배운 회복적 생활교육이 해답이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고, 다소 흔들렸다. 교사의 서로 다른 교육관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우리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기존의 생활교육 체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운영이나 사후 관계회복프로그램, 사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정도로 적용 범위를 대략 정했다.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본 정신

언어가 사유(思惟)를 규정한다. 어떤 호칭과 표현을 사용하느냐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피해자가 아닌 행위자-피행위자-당사자, 생활지도가 아닌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활지도가 아닌 생활교육은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정답(定答)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해답(解答)을 찾자는 입장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만나고, 교육자로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본 정신이다. 새 언어와 새로운 인식, 새로운 시선이 꽉 막힌 학교 생활교육의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①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워크숍

이해와 공감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맞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속적인 관계회복 실천을 위한 교사 공동체 치유, 교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탐구, 갈등 전환 기술 습득 등으로 구성된다. 또래 갈등을 스스로 풀 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문의 | 즐거운학교 070-8282-0140 / www.njoyschool.net

회복적생활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하브루타 독서토론 7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카드놀이

글. 유현심 진북 하브루타 연구소 대표



하브루타(havruta)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하브루타란 이스라엘의 인사말인 ‘샬롬 하베르’(안녕 친구)에서 유래된 말이다.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공부법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말하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유행처럼 하브루타 관련 책과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요즘 들어 주춤하다. 하지만 학습방법으로서 하브루타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한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하브루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브루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대인 성공의 비밀, 하브루타

하브루타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예시바도서관에서 지혜의 책이라 일컬어지는 탈무드를 가지고 열린 토론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을 것이다. 짝과 함께 탈무드 본문 내용에 대해 서로 질문하며 격렬한 논쟁까지 벌이는 독특한 공부 방식인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믿을 수 없는 성공의 배경 중 하나로 떠오르며 최근 우리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도대체 하브루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하브루타

우리 뇌와 신체의 연관성 지도인 ‘호문쿨루스’를 발표한 캐나다의 신경외과 교수 와일드 펜필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손·발·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호문쿨루스를 통해 유추해보면 격렬하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하브루타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활동과 더불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2015년 EBS 스페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제5부 말 문을 터라’ 편에서는 ‘조용한 공부방, 말하는 공부방’ 실험을 통해 말하는 공부 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효과가 뛰어난 하브루타를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글쓴이는 지난 7년 동안 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쌍

방 소통하며 배우는 하브루타가 우리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며 적용해왔다. 그중 '7 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카드' 활용법을 소개하려 한다. '7 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카드'는 한 권의 책을 다 함께 읽고 카드에서 안내하는대로 토론하다 보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면서도 책 내용을 깊게 이해하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7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카드 활용법

먼저 한 편의 독서토론용 텍스트와 '7 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카드'를 준비한다. 텍스트는 10분 내외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이면 좋다.

📖 인원 구성: 독서 하브루타를 위한 토론 카드로 되도록 4명 이상 6명, 8명 등 짝수로 모둠을 구성하고, 토론 리더를 정하는 것이 좋다. 토론 리더는 교사 또는 학생 중 한 명으로 한다.

📖 토론 리더는 어떤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촉진자 역할만 한다.

📖 모둠원들은 한 사람의 의견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 같이 박수로 지지한다.

📖 경청을 돕기 위해 예쁜 볼펜 등을 '토킹스틱'으로 정하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만 '토킹스틱'을 들고 이야기하며, 다른 모둠원들은 귀 기울여 경청하도록 안내한다.

📖 짧은 텍스트나 책을 정해 7 키워드 무지개 <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로 토론을 한다. 7 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을 마친 후에는 회색 찬반 카드나 각자 뽑은 궁금 질문 중 찬반 질문 또는 옳고 그름 질문 중에서 하나의 질문을 선택해 찬반 하브루타로 확장한다.



약력 유현심

- (주)코리아에듀테인먼트 / 진북 하브루타 연구소 대표
- 즐거운학교 하브루타 독서토론 프로그램 협력강사
- 오산교육재단 찾아가는 교원연수 아카데미 강사
- 저서 『유대인에게 배우는 부모수업』 『하브루타 일상수업』 『진짜독서를 위한 ZINBOOK 독서토론』 등

7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진행방법

빨강 낭독 1번 카드를 맨 위에 두고 회색 찬반 64번 카드가 맨 아래 깔리도록 카드를 엮어 두거나 빨·주·노·초·파·남·보·회색 순서대로 카드를 엮어둔다.

📖 (빨강) 낭독 카드: 먼저 빨강 낭독 카드를 돌아가며 한 장씩 뽑아 카드에 나온 방법대로 텍스트를 큰 소리로 낭독한다.

📖 (주황) 경험 카드: 모든 텍스트에는 저자의 직·간접 경험이 녹아 있다. 카드를 뽑아 책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주변의 경험, 방송이나 영화, 매스컴 등에서 경험한 직·간접 경험을 나눈다.

📖 (노랑) 재미 카드: 카드를 뽑아 텍스트를 읽으면서 재미있었거나 독특한 부분, 기발했던 내용, 감동적인 부분, 희로애락(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 등)의 감정이 느껴진 부분을 찾아 읽고 이유를 나눈다.

📌 (초록) 공금 카드: 카드를 뽑아 텍스트를 읽으면서 떠오른 질문, 텍스트에 있는 단어나 문장, 내용, 주인공, 등장인물, 배경, 저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 포스트잇에 질문을 만들고 참가자들과 질문-대답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파랑) 중요 카드: 카드를 뽑아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와닿은 부분을 찾아 읽고 중요한 이유를 나눈다. 옆 짝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는 설명 하브루타로 확장할 수 있다.

📌 (남색) 메시지 카드: 카드를 뽑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이유를 유추해본다. 정해진 정답은 없다.

📌 (보라) 필사 카드: 카드를 뽑아 카드에서 지시하는 대로 본문 내용 중 밑줄 그은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고 왜 그 부분을 필사했는지, 필사한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 나눈다. 필사용 예쁜 노트를 마련해 필사 후 자기 생각을 함께 적어 명언 집으로 활용하면 좋다.

📌 (회색) 1:1 찬반 하브루타 카드: 토론을 하면서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으로 나뉘는 주제가 있는 경우 찬반 하브루타(논쟁식 토론)를 실시한다. 먼저 카드를 뽑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찬성/반대 관점을 나누어 3~5분 정도 하브루타 토론을 한 후, 다음 카드를 뽑아 반대/찬성 입장으로 바꾸어 하브루타 토론을 한다(스위칭). 다시 다음 카드를 뽑고 짝을 바꾸어 찬성/반대 토론을 하고(체인징), 그다음 카드를 뽑고 입장을 바꿔 반대/찬성 토론을 한다(스위칭). 한팀 인원이 6명 이상이면 한 세트를 더 뽑는다. 이어서 돌아가며 찬반 토론을 했던 4~8명이 한팀이 되어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토론하고 발표로 마무리한다(집단 지성 발휘).

* 쉬우르: 리더는 오늘 토론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질문으로 전체 하브루타 토론을 하거나 참가자 모두의 소감 나누기로 마무리한다. ①

하브루타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하브루타를 그림책, 진로, 메이커, 인성·리더십에 접목하여 한국형으로 개발한 독서토론 프로그램. 낭독(朗讀)과 필사(筆寫), 토론(討論)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독서 태도와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표현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품과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다. 7키워드 무지개 독서토론 카드는 티처몰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 즐거운학교 070-8282-0140 / www.njoyschool.net

교육 프로그램



독서토론 카드 구매하기



계획 수립은 1학기에, 일정 확정은 2학기에!

2학기 학생 체험교육 미리 준비하세요!

오감 체험형 진로탐색 '해오름'



미래 직업 방송의 세계 디자인 마음 진로 미식회 나만의 끼 넓은 세상

진로·직업체험



학생 자치회 리더십 캠프

Z세대를 위한 1인 미디어 특강

BE THE BJ!
BJ 직업설명회

찾아가는 BJ 직업설명회

회복적서클
또래진행자 양성 과정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법

진로적성 탐색 및 학습전략
내 진로는 내가 정한다



고교학점제 대비

즐거운학교가 **전국 초·중·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다양한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맞춤형**으로 만나보세요!



교육활동계획

학교 맞춤형 교육계획서,
견적서 제공



교육운영

특색 있는 교재와 교구,
전문강사 파견



결과보고

교육내용 및 학생교육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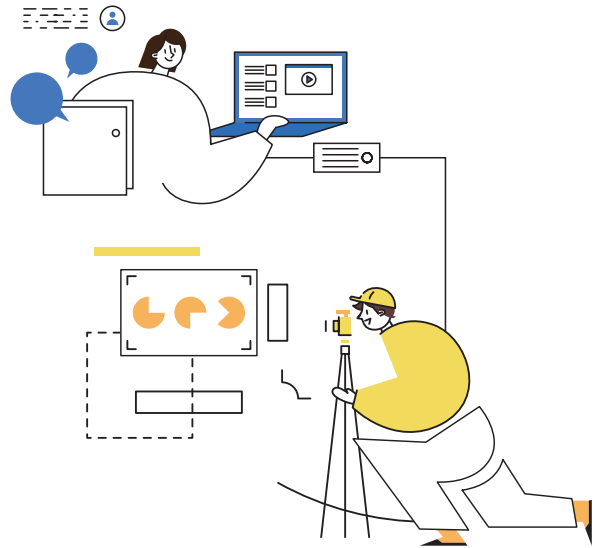
정산 및 행정처리

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가능(행정부담 최소화)



"온라인으로 메이커 수업을? 경북초에선 진짜로 해요!"

글. 황중원 경북초등학교 선생님



“네? 메이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메이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의 아홉은 ‘그게 정말 가능해’라는 의구심을 품고 저렇게 되묻곤 한다. 지금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진통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초 사례가 신기하고,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다. 하지만 경북초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스마트 교육 연수를 진행해 왔고, 메이커 온라인 수업은 그런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순간에 벌어진 신기한 일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북초, 꾸준히 스마트교육 연수 진행하다

경북초등학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온라인 학습 모델을 열어가고 있다. 수년 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전 교사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했으며, 모든 선생님이 원격 수업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꾸준히 스마트교육 연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다년간의 사전 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쌍방향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갖추어 교육과정에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1. 경북초 온라인 수업.
2. 경북초 메이커 온라인 수업.
- 3, 4. 경북초 메이커 온라인 수업 산출물.

경북초의 온라인 학습모형과 교수법

온라인 학습은 KIMOS(Kyungbok Interactive Model for Online School)라는 명칭으로 교수학습방법(Pedagogy), 기술(Technology)과 콘텐츠(Contents)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TPACK(Technology, Pedagogy and Contents knowledge) 모형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IMCAS모형(Interacting, Modelling, Creating, Arranging, Sharing)을 개발·적용했으며,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KIMOS 시스템을 통해 매일 아침 8시 40분까지 접속을 완료, 8시 55분까지 아침 독서를 시작으로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뿐만아니라 인성교육 및 신체발달교육, 예체능교육, 독서교육까지 모든 과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메이커 온라인 학습, 이렇게 진행하다

3년 전부터 ‘메이커교육’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초등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테크빌교육(주)과 함께 메이커 전문 강사들로 인적 자원을 준비했고, 메이커 센터와 메이커 컨퍼런스룸 등 메이커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현재 메이커 또한 정규 과정으로 온라인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메이커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플립러닝을 통해 각 주제의 재료준비와 활동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된 메이킹은 현재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참여하는 과목이다. 온라인 학습의 장기화를 대비해 Drive-thru를 통해 메이커키트 재료를 제공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대면해 수업을 하는 것만큼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 산출물을 공유하여 개별 피드백을 다양한 각도로 진행하며, 꾸준한 수업연구 및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있다. ㉠



약력 황중원

- 現 경북초등학교 교사
- 저서 『메이커교육(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만난 구성주의)』

"수업에 필요한 영상만 곡곡, 샘플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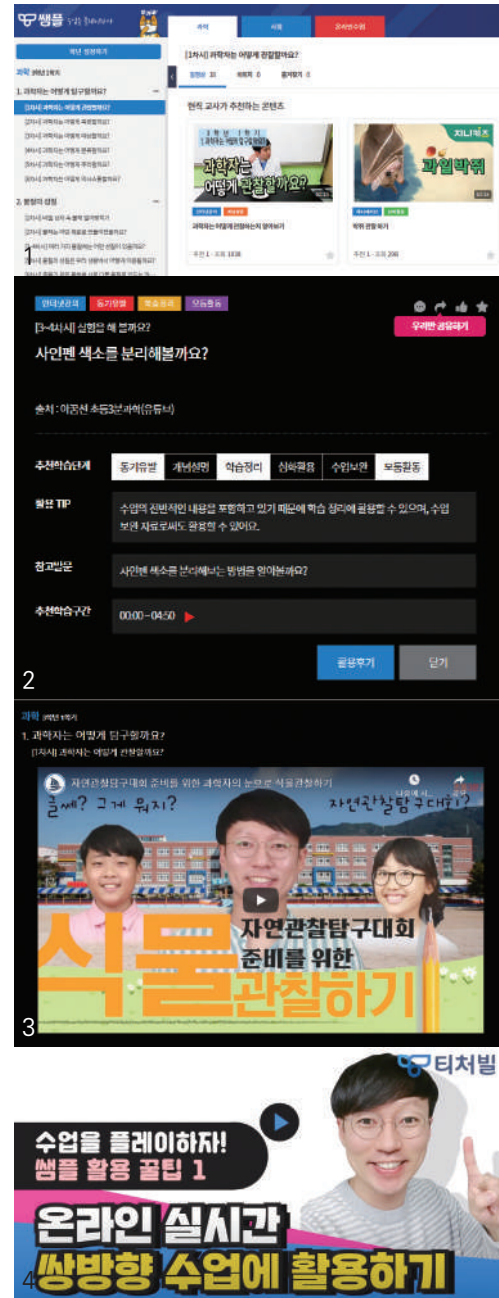
현직 교사와 AI가 동시에 큐레이션하다

글. 심준보 창원 자은초등학교 선생님

영상 콘텐츠는 온라인 수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학습방법의 하나다. 학생들의 흥미를 확장할 수 있고, 플립러닝과 같은 학생 중심의 학습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영상 활용 학습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유튜브에 1분마다 400시간의 영상이 업로드된다고 하니 그 수많은 영상 중에서 적합한 영상을 고르는 것도 일일 뿐더러 학습 영상 시청 중 다른 영상의 유혹을 받을 확률도 높다. 이런 가운데 앞선 우려를 불식시키는 새로운 학습 큐레이션 서비스인 '샘플'이 출시되었다. 직접 활용해보니 원격수업은 물론 교실 수업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샘플'의 매력 속으로 지금 떠나보자.

유튜브, 크레이팅보다 '큐레이팅'

유튜브 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에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이를 계산하면 1시간이면 2만 4,000시간의 영상이, 하루면 57만 6,000시간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영상이 업로드될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만 보면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을 다 시청하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66년을 시청해야 하는 양이다. 내가 필요한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내가 정작 필요한 영상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앞으로는 크리에이터(creator)보다는 큐레이터(curator)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큐레이터는 원래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을 뜻했는데, 최근에는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지는 않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찾아서 분류하고 공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 바로 티처빌에서 운영하는 '샘플(ssampl)' 큐레이션 사이트다. 큐레이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자료의 가치도 달라지는데, '샘플'에서는 현직 교사와 AI가 동시에 큐레이션하므로 믿고 활용할 수 있다.



1. 학년별, 단원별, 차시별: 학년을 설정하면 단원별·차시별 큐레이팅 영상을 볼 수 있다.
2. 샘플 활용: 추천학습단계, 활용 TIP, 참고 발문, 추천학습구간, 활용후기.
3. 우리 반 공유하기: 우리 반 공유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공유한 URL로 접속한 화면.
4. 샘플활용꿀팁: 수업을 플레이하자! '샘플' 활용 꿀팁 3가지.

'샘플' 활용 꿀팁 3가지
유튜브 영상



원격 수업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샘플'

교육부가 NEIS를 통해 4월 27~29일에 교사 2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행했는데, 온라인 개학 이후 한 달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5%라고 조사되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적이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돌발성에 있다. 예를 들어 줌이나 구글 행아웃 등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다가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즉흥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유튜브를 활용해서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자료가 검색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증되지 않은 영상이 나와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당황할 수 있다. 이때 '샘플'을 이용하면 현직 교사와 AI가 큐레이션을 해주었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e-학습터·ebs 등 온라인 학습을 운영할 때 사이트에 있는 기본 콘텐츠만으로 수업을 모두 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거의 전 과목을 담임교사가 수업을 구성해야 하므로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많다. '샘플'은 이러한 교사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클릭 한 번에 필요한 구간학습 바로 가능

동영상은 다양한 수업 환경에 적합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많은 교사가 주제 소개, 내용 검토, 교정, 개선,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다(강고은, 2019, 수업에서의 동영상 활용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수업에 적합한 영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샘플'에서는 사회·과학 교과의 각 학년, 단원 및 차시에 맞는 추천학습단계, 활용 tip, 참고 발문이 표시되어 있어서 영상을 찾지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추천학습구간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에 필요한 학습구간을 바로 학습할 수 있다. 큐레이션한 자료를 즐겨찾기에 추가해두면 두 번 찾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수업에 활용했던 영상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다. 더 많은 교사가 '샘플'을 활용하고 활용 후기까지 공유하게 된다면 더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으로 학습할 때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학습 영상을 보다가 다른 영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샘플'의 우리 반 공유하기를 이용해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주면 추천 영상 없이 필요한 화면만 나와 영상에 집중할 수 있고, 왼쪽 상단에 학년과 단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좀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약력 심준보

- 現 창원 자은초등학교 교사
- 現 경남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 개발위원
-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 연구회 부대표
- 티처빌 원격연수 강사 (인 미디어 전성시대, 유튜브 브런치)
- 저서 『초등과학실험』(공저) 외
- 2020 경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

"교사의 역할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협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글. 김현정 티처빌사업부 선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교육 속에 코딩·AI·AR 기술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고 있다. 여기에 아이들의 지도에 대한 고민으로 ‘스마트 교육’에 입문했고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 미래 교육은 아이들이 만들어 가고, 아이들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신민철 선생님을 <티처빌이 간다>가 만났다.

Q. 선생님의 근황과 직접 기획해주신 학습사이트 <학교가자.com>에 대해 알고 싶어요.

최근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퇴근 후에는 <학교가자.com>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가자.com>은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월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겠다는 직감이 왔고, 자연스레 온라인 학습이 이뤄지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연구회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것도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회의로요. 일단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휴대폰에서 잘 보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글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게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참여와 재능기부로 ‘학교가자.com’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면서 하루에 최대 10만 명의 선생님이 찾아주실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약력 신민철

- 現 대구 진월초등학교 교사
-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 유튜브 러닝 프로젝트 - 유선생 아카데미 1기
- Google Certified Innovator
- Google Certified Trainer
- Google Certified Educator
- Microsoft Solar School 현지 교원 연수 강사
- KERIS 첨단 교실 구축 사업 자문위원
- 저서 『교실의 미래 구글 클래스룸(2019)』(공저)

Q. 스마트교육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군 전역 후 열명으로 구성된 반의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소위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학습수준이나 가정형편 등이 매우 달랐고,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어 일반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수학만 6~7시간 정도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칸아카데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연수를 본 후 든 생각은 한마디로 ‘신세계다!’였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적용을 해보았는데, 처



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이메일 가입부터 말이죠. 그 이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칸아카데미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저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전에는 ‘넌 왜 이것을 못 하니?’였는데, ‘애가 이러한 이유로 어려워했던 거구나’라고 말이죠. 이때 데이터의 힘을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온라인에 있었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계시는 조기성 선생님께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여쭙봤어요. 처음 세팅·구축 등을 제가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걱정하는 저에게 “일단 해보고 말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그린 수업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잘 따라주었고, 굉장히 멋진 수업들을 만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신대요. 구글 클래스룸이란 무엇이고 어떤 수업을 주로 하나요?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 도구를 교실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모아놓은 집합체로 교실 공간에서 도구들을 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릴 수 있고, 함께 문서를 만들고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아이들과 PBL 협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 ‘온북스(한 학기 한 권 읽기)’, ‘배리어프리 지도’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했어요.

구글 클래스룸은 협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구글 슬라이드, 구글 독스,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작업하고 있으면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등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반영한 수정사항을 즉각적으로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미리 영역만 나누어주면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고, 교사도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면서 학생

칸아카데미란?

미국의 살만 칸이란 청년이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직접 만든 학습 동영상 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로 영상 교육 자료와 함께 개별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들의 학습을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워할 수 있지만, 누군가 도와주고 적응을 하면 모두 잘해요. 요즘 아이들의 시대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잖아요. 어른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래 교육에 대하여 듣고 싶어요.

미래 교육은 어른들의 가치보다 아이들의 가치가 더 존중받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은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아이들이 직접 지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매우 강하게 여겨지는 교육이 펼쳐지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우리 미래 교육에는 지식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과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지금 보다 더 열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식보다는 역량에 맞추고 암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에 더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타칭이 아니라 코칭, 코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T

수업을 바꾸는 마법,
구글 클래스룸



코로나19로 변한 교육환경, 미래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미래학교의 프론티어 창덕여중의 교육 현장

글. 이은상 창덕여자중학교 선생님



창덕여중이 미래 교육을 향해 첫걸음을 뗀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작한 덕분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는 적었지만, 전국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어려우셨을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창덕여중의 조금 더 빠른 경험담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 미래 교육으로 향하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의견을 보낸다.

코로나19 이후, E 교사의 일상

오전 8시 30분, E 교사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팀즈 플랫폼(MS)의 학급 채널에서 실시간 화상 조회로 하루를 시작한다. 5년 동안 사용한 플랫폼이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다. 온라인 조회가 끝나면, 바로 팀즈 플랫폼에서 과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전날 제출한 과제를 점검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거의 반나절은 이러한 피드백으로 시간을 보낸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원인을 찾고 독려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동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생활지도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지도에 집중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은 더 이상 폐쇄적일 수 없다.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은 창덕여중이 2016년부터 해온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으로 보다 빠르게 새로운 플랫폼과 학교 분위기에 적응한 듯하다.



약력 이은상

- 現 창덕여자중학교 교사
- 교육부 원격교육 정책 자문단 위원
- 미래교육공동연구소 교사연구자
-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디지털과 교육체제 융합' 세션 발표(2019)
- 저서 『세상을 바꾸는 수업: 체인지메이커 교육』, 『핀란드교육에서 미래교육의 답을 찾다』(공역)

창덕여중의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이란?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미래학교의 수업에 잘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초가 되는 지식을 공부하고, 학교에 대해 배우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수업이다.

학기 초에 한 달 동안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수업시간에 6가지 내용, 즉 자기주도학습 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 민주적 참여 역량, 자기 관리 역량, 학습공간 활용 역량,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깊이 있는 수업은 선생님들과의 협업적 수업 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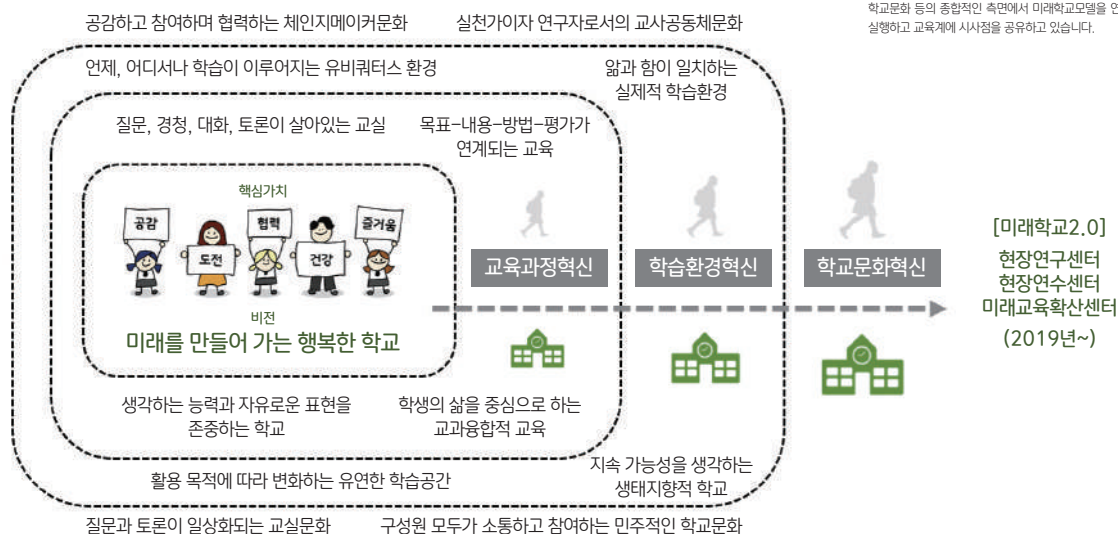
교사는 원격 수업을 시작하며 같은 교과 선생님들과 협업을 통해 통합 수업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교사들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고, 각 과목에서 다룬 세부 질문과 자료를 선정했다. 교사 간 협력적 수업 준비와 실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이 하나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협력적 수업이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선생님들의 협력 그 자체가 자신들의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선생님들 역시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수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학교의 프론티어 '창덕여중', 5년 동안의 노력과 도전의 결실

지금까지의 학교 일상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학교가 한국에 얼마나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만들어 가는 학교 사례를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 기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학교가 한순간에 미래학교가 되는 것은

창덕여자중학교는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지정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교문화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미래학교모형을 연구·실행하고 교육계에 시사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창덕여중은 2015년부터 미래학교를 연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미래 교육이어야 하는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교육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협업하며 실행을 하는 학교였다.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는 일은 공간의 변화, 에듀테크의 도입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가장 교육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도전해왔다.

지금의 창덕여중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를 주는 학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5년 동안 교육과정·학교문화·학습환경의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와서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교육청이 시도하는 사업들에 창덕여중 구성원들이 프런티어로서 활동함으로써 동료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육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미래 교육이 가는 길에 창덕여중 교사들이 이바지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에 바란다

불현듯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사불란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대다수의 일선 학교가 원격 수업을 빠르게 준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것만 보아도 한국교육이 갖는 저력은 엄청나다. 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을 지원한 교육부·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EBS 등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변한 교육환경의 흐름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변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보탠다.

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우선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원격 수업 기간 중 학생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것 중 하나가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이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교사의 기본이지만 지금까지는 각종 행정업무·생활지도 등에 밀리거나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격 수업 동안의 행정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미래 교육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딴셈’ 하는 것만 아니라 과감한 ‘뺄셈’이 필요할 것이다.

② 학습환경으로서의 에듀테크 도입

에듀테크는 학교의 기본적인 학습환경으로서 도입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에듀테크를

1. 협업을 위한 통합 수업을 협의하고 있는 선생님들.
2. 창덕여중 1학년 융합프로젝트 학습.
3. 사회·역사·도덕 수업 학생들의 질문과 답.
4. 창덕여중 1학년 온라인 교실 ‘오늘의 조화’.
5. 3-4교시 기초와 적응 과목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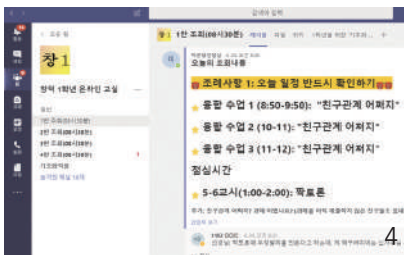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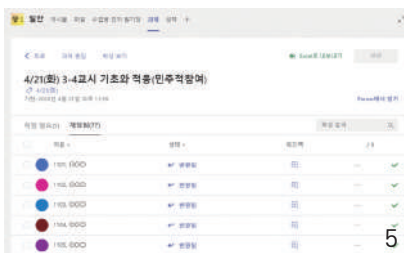
2



3



4



5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유발하는 학습환경이며, 본질적인 교육 행위를 지원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다만 에듀테크의 선정, 준비, 활용, 유지·관리는 교육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인 만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의 미래학교에서는 테크매니저들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미래 교육을 위한 총체적 법령 정비

미래 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법령 정비 또한 중요하다. 법률·시행령·훈령·고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이 미래 교육적 상상과 실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이번 원격수업의 경우만 해도 교육부·교육청·학교의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 과도한 논쟁이 발생했다. 출석과 평가 인정 범위 등도 원격 수업 상황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과감한 혁신을 허용하는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④ 다양한 전문가와 교사들의 미래 교육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 교육을 연구하고 확산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에듀랩(eduLab)이란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기관·현장교사·정부기관·민간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미래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이후 민간기업과 정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일종의 한국형 에듀랩(K-eduLab))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평균의 종말』을 쓴 토드 로즈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교육과 현재의 교육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는 언제나 우리 곁을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질병 관리와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칭송받는 것처럼 대한민국 학교 교육 시스템 또한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뉴노멀의 시대에 발맞춰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T



체계적인 성교육, 밝음의 '성문화' 지향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배우는 성인지 감수성

글. 이재정 창덕여자중학교 선생님

학창 시절 누구나 한번은 성교육을 받는다.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과거의 성교육은 갑작스럽게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전부였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민은 나누기 힘들고 어쩐지 불편하고 어색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성'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법 없이 늘 감추고 꺼리는 주제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세상이 펼쳐지며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각종 성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n번방 사건도 그 대표적 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는 '아이들의 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여전히 성교육은 생소하고, 학교가 가르치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온 성교육 전문가를 만나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튜브 5초 광고도 긴 요즘 아이들

'45', '10'. 나는 이 두 가지 숫자 사이에서 하루 중 8시간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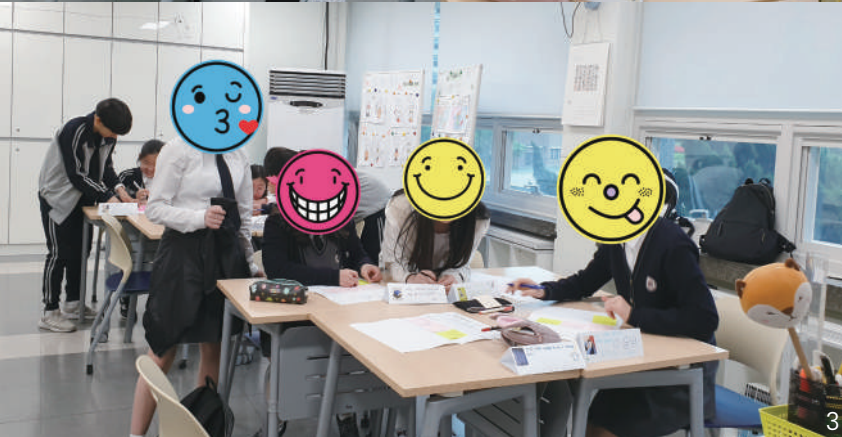
'5'. 유튜브에서 광고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앞에 제시한 숫자 45, 10과는 시간 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학교 수업 시간 45분과 비교하면 5초라는 시간의 길이는 $5/2700 \times 100 = 0.1\%$, 그런데 그 5초를 건너뛰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지불한다.

학교 성교육은 오랫동안 교육적 의미를 함축한 영상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어른인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를 적도록 구성된 활동지, 일명 3중 세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n번방 사태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많은 전



약력 이재정

- 現 창덕여자중학교 교사
- 現 전국 보건교사회 학술이사
- 現 대한성학회 성교육위원회 위원
- 現 '와이스토리' 전문 필진
- 2015~2018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학생건강정보센터 웹사이트 실무위원 및 자료 개발(성교육 분야) 외 다수



1. 성교육 첫 시간, 둘러앉아 성에 대한 호기심 나누기.
2. 일과 중 육아체험, 아기를 돌보며 수업 참여, 급식 먹기, 모든 학교생활을 해야 함.
3. 월경 고민을 쓰고 모동별로 돌아다니며 고민 상담 글쓰기, 공감, 조언 쓰기.
4. 학교 일과 중 임신 체험, 임신복을 입고 수업 참여, 급식 먹기, 모든 학교생활을 해야 함.

문가가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생물학적 성교육만 할 뿐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들의 손안엔 이미 엄청난 성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영상을 더 볼지, 말지 결정하는데 5초도 길다고 말하는 아이들(나 포함)을 만나서 학습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비단 보건 교과만의 과제는 아니다. 타 교과와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도 고민 많아

간호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성교육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 '성폭력 예방 교육 2시간!'. 간호대학 커리큘럼에는 그 어디에도 성교육이라는 과목이 없는데, 학교에 오면 업무로 주어진다. 신규 보건교사는 이 지점에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어 보건 수업 시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관련 교과목의 성교육도 성교육 시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대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강당 집합 교육이나 방송 교육으로 시행한다. 언젠가 성교육 전문기관의 유명 강사를 우연히 만나 이와 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도 “사실 방송 교육 두 시간 흥미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 마음에 문제점 발견이라는 불만 지피고 빠지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더라.

학교급별·학년별 체계적 교육과정도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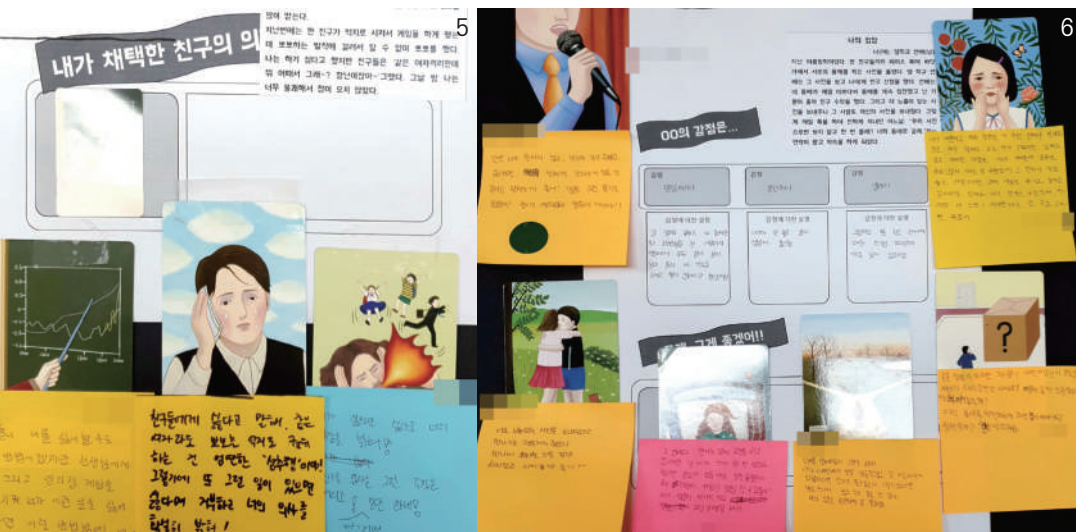
학교급별·학년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아이들과 함께 구성해야 한다. 너무 많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산으로 가버린, 성교육 표준안이 있다. 일부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학교급별·학년별 체계적인 성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n번방 사건, 성교육도 대면으로 밝음 지향해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온라인 수업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던져졌다. 디지털을 이용한 수업이 폭풍처럼 쏟아지던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성범죄’에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미·정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 교육과 범죄까지 공존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교육을 과제제시형으로 실시했다.

5. 이성 교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제시, 모든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읽기 게임.

6. 또래 상담 활동.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출된 과제를 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분노를 표출했지만,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는 먼 이야기로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성교육은 대면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이루어져야 하고 밝음을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지키고 싶고 쓰레기 집하장을 지날 때는 자연스레 코를 막으며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가? 어느 날 갑자기 앞뒤 없는 성폭력 예방 교육 두 시간은 오히려 어두운 성을 부각시키기만 하지 않을까?

당사자 관점에서 마음으로 배우는 '성인지 감수성'

'성'이란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성교육'이란 더불어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과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나는 온라인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 포함)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계속 고민하며 실행 중이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정, 사회인식의 변화, 가부장적 사회문화, 성 상품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넘치고 넘쳐난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으로 시작되는 사회변화를 오늘도 꿈꾸어본다. **T**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



매일경제 (2020. 02. 12)

세종사이버대학교, AI 기반 학습분석·관리시스템 도입



(기사 중략) 세종사이버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최근 '역량 기반 지능형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를 통해 업체 평가를 진행한 후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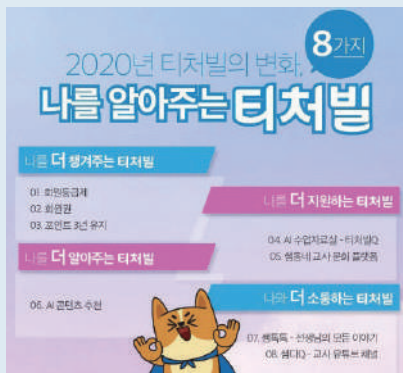
테크빌교육은 대학, 연수원, 기관 등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제공하며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학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테크빌교육은 향후 전국 유치원·초·중등 교원 54만명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 서비스인 '티처빌' 운영 노하우와 인공지능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세종사이버대의 디지털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민서 기자

전자신문 (2020. 03. 02)

테크빌교육, 회원등급제 도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티처빌에 원격교육연수원 최초로 회원등급제를 도입하고, 신규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티처빌은 54만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연수 및 교사수업자료, 도서, 교구재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회원등급제 도입을 통해 티처빌은 선생님 회원에게 등급별 차별화된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전략이다. 회원등급제는 전년도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패밀리, 실버, 골드, VIP 총 4단계로 구분한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드 등급부터는 오프라인 연수 무료초대 혜택이 제공된다. VIP 등급이 되면 오프라인 연수 무료초대와 함께 수시로 진행되는 VIP 전용 이벤트 참여, 티처빌 매거진 무료구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등급 유지기간은 1년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무려 3년 동안 티처빌연수원과 티처몰에서 연수, 교재, 상품 구입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회원등급제 적용에 따라 티처빌은 최대 34% 할인된 가격에 연간 회원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오는 12일부터 진행한다. 티처빌은 회원권 구매와 동시에 회원등급이 바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

전지연 기자

매일일보 (2020. 3. 27)

키즈티처빌-킨더슬레보육경영연구소와 직장어린이집 교사 교육 협력



테크빌교육의 영유아 교사 교육 브랜드 '키즈티처빌'은 직장 어린이집 위탁경영 전문 비영리단체 '킨더슬레보육경영연구소'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킨더슬레보육경영연구소가 위탁 운영하는 직장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안심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양 기관은 △안전 전문가 교육 △선진교육 프로그램 연수 및 교류회 △어린이집의 전문적 운영 △영유아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각 사가 보유한 채널과 서비스를 활용한 교육 및 마케팅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테

크빌교육은 킨더슬레보육경영연구소 산하 직장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개발한 영유아 안전지도사 과정으로 자격증까지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기호 기자

경인일보 (2020. 04. 12)

인천시교육청-테크빌교육 교직원 원격연수 기술제휴



인천시교육청이 디지털교육 전문기업 '테크빌교육'과 원격연수 기술 개발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사들에게 온라인 원격연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명사랑 지킴이 역량 강화' 연수를 우선 제공한다.

테크빌교육은 6년 연속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에듀테크 혁신경영대상'

을 받은 기업이다.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학교현장에 요구되는 빠른 변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해나가는 우수한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더욱 협력해야 할 때"라며 "에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조선예듀 (2020. 4. 28)

부모공감-제주YWCA, 청소년한부모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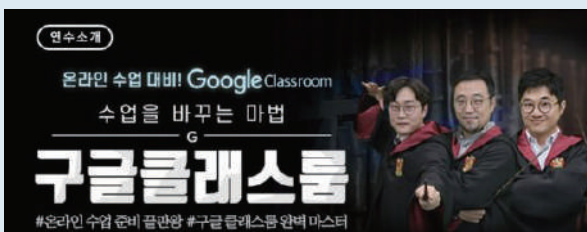
테크빌교육의 양육통합플랫폼 ‘부모공감’이 ‘제주YWCA’와 제주도 청소년한부모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YWCA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한부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미혼부)지원 사업은 어린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도내 청소년한부모의 자존감회복과 사회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테크빌교육의 양육통합플랫폼 ‘부모공감’은 자체 개발한 심리검사 ‘부모자녀관계검사’와 ‘부모공감’ 사이트 내 제주YWCA 회원만을 위한 육아고민 온라인 상담소 개설 및 운영지원을 통해 ‘맞춤형 육아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공감 부모자녀관계검사는

영유아기 자녀의 기질, 발달특성, 자녀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스타일, 양육효능감, 육아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해 맞춤형 육아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검사이다. 제주YWC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한부모에게 양질의 부모교육 및 육아고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육아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종임 기자

뉴스1 (2020. 05. 06)

[코로나 뉴노멀] “쌤도 변해야죠” 교육계 불어 닥친 비대면 교수법 열풍



(기사중략) 학교 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테크빌교육은 교사 지원 플랫폼 티처빌을 통해 이번 달 온라인 개학에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쌤플’ 서비스를 출시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쌤플 서비스를 활용해 초등 사회·과학 수업에서 교과서 단원·차시별 핵심적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온라인 개학

후, 학습 현장에서 반응이 뜨거워 국어, 수학, 음악 등 전 교과로 서비스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테크빌교육은 다음 달부터 학교 선생님들의 온라인 학급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해 온라인에 알맞는 교수법과 학급 운영 방식을 전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클래스룸 연수 △MS의 팀즈연수 △온라인수업 사례 연수 등 다양한 교사 연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상무는 “오프라인 개학이 되더라도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연결되는 형태의 수업모델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며 “테크빌교육의 교사 지원 플랫폼인 ‘티처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교육 환경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플랫폼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기 기자, 최동현 기자

전자신문 (2020. 05. 22)

테크빌교육, CJ ENM ‘다이아 티비’와 크리에이터 발굴·양성 위해 맞손



테크빌교육이 CJ ENM ‘다이아 티비’와 교사 및 학생 교육 크리에이터 발굴과 양성 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테크빌교육은 CJ ENM 다이아 티비와 대한민국 교사 및 중고등학생에 준하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영상 크리에이터를 뽑는 ‘스쿨스타S’ 유튜브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공모전을 계기로 양측은 교사·학생 교육 크리에이터 시장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영유아 및 초, 중, 고 교사는 물론 학생 크리에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 다이아 티비는 지식 정보성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티처빌의 교사지원 콘텐츠 공유플랫폼에 제공한다.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티처빌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최근 정보검색은 물론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까지 유튜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교사 유튜브도 검직이 허용되면서 교사 크리에이터의 역할 확대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이 양질의 러닝 콘텐츠를 만들며 주목 받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연 기자

머니투데이 (2020. 05. 28)

테크빌교육(주) 부모공감, ‘언택트(Untact) 부모교육 서비스’ 론칭



테크빌교육(주)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전문기관 ‘부모공감’이 27일 코로나19 대응 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언택트(Untact) 부모교육 서비스’를 론칭했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부모교육 서비스 모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부모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부모교육을 먼저 선보여 자녀 양육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 부모님들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부모공감의 ‘언택트(Untact) 부모교육 서비스’는 부모자녀관계검사(PRT)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

되는 온라인 LIVE 부모교육이다. 참여 부모들은 부모공감에서 자체 개발한 부모자녀관계검사(PRT)를 통해 자녀의 기질, 발달 특성, 자녀 스트레스 및 부모의 양육 스타일, 양육효능감, 육아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LIVE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육아코칭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기업 등을 비롯하여 ‘언택트(Untact) 부모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고문순 기자

2020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5기	4학점	06월 17일	07월 21일	08월 22일	08월 28일
	3학점	06월 10일	07월 07일		07월 08일
		06월 24일	07월 21일		07월 22일
	2학점	06월 10일	06월 30일		07월 01일
		06월 24일	07월 14일		07월 15일
	1학점	06월 10일	06월 23일		06월 24일
		06월 24일	07월 07일		07월 08일
6기	4학점	07월 22일	08월 25일	08월 22일	08월 28일
	3학점	07월 08일	08월 04일		08월 05일
		07월 22일	08월 18일		08월 19일
		07월 29일	08월 25일		08월 26일
	2학점	07월 08일	07월 28일		07월 29일
		07월 22일	08월 11일		08월 12일
		07월 29일	08월 18일		08월 19일
		08월 05일	08월 25일		08월 26일
	1학점	07월 08일	07월 21일		07월 22일
		07월 22일	08월 04일		08월 05일
		07월 29일	08월 11일		08월 12일
		08월 05일	08월 18일		08월 19일
특별기수	3학점	08월 19일	09월 15일		09월 16일
	2학점	08월 19일	09월 08일		09월 09일
	1학점	08월 19일	09월 01일		09월 02일
7기	4학점	09월 09일	10월 20일	10월 17일	10월 23일
	3학점	09월 02일	10월 06일		10월 07일
		09월 16일	10월 20일		10월 21일
	2학점	09월 02일	09월 22일		09월 23일
		09월 16일	10월 13일		10월 14일
	1학점	09월 02일	09월 15일		09월 16일
		09월 16일	10월 06일		10월 07일

※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달 전부터 가능

티처빌 18주년

EVERYDAY TEACHER'S DAY



★★★
570,000명
티처빌을 이용한 교원

★★★
2회 연속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운영평가 우수기관)

★★★
8,361개
선생님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

티처빌의 시작 그뻐 그랬지



★★★
120권
선생님들과 함께
테크빌이 제작한 책

★★★
56,764개
티처빌과 동고동락한
선생님들의 리얼 후기

★★★
6년 연속
KERIS 최우수기관 선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2002년부터 2020년 오늘까지 매일을 '처음'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달려온 티처빌의 기록들



즐거로운 교사 생활

티처빌이 응원해!



티처빌
회원혜택



누구나 다 드림
무한 업데이트 중

회원
등급제



회원등급별 혜택
나의 회원 등급은?

AI 수업자료실
샘플



현직교사인증
온라인 무료자료

교사문화 플랫폼
샘동네



교사가 직접 만든
교사 콘텐츠 공유

쌤톡톡
& 쌤다Q



교사 온라인 상담
교사 유튜브 채널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티처빌의 내일을 만듭니다!

티처빌에 제안주신 아이디어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갑니다



아이디어 제안
하고 선물받기



FROM NOW ON



·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

G Suite For Education으로 만나는 온라인 수업

1학점 **수업을 바꾸는 마법, 구글 클래스룸**



신민철 박정철 이제창

강의 특징

- 구글 도구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연수
-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와 교사 이노베이터가 함께 풀어가는 깊이와 재미가 함께 담긴 강의
- 실제 수업 장면 속에서 적용된 구글 도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강의 개요

요즘 가장 핫(Hot)한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도구 중 하나인 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입문의 난이도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만다. 구글 클래스룸, 구글 오피스 등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도구를 모아둔 G Suite For Education은 클라우드 기반의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수업뿐만 아니라 과 정중심평가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G Suite For Education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 설명부터 시작해 실제 수업 장면을 보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과 운영 관리까지! 선생님들을 구글 도구를 활용한 수업 전문가로 바꿔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선생님도 포노 사피엔스가 될 시간!

1학점

최재봉 교수가 알려주는 교실 속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강의 특징

- 온라인 수업으로 떠오른 디지털 문명의 흐름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례로 설명
-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교실 속 포노사피엔스 지도법에 대한 최재봉 교수님의 답변 제공
- 포노사피엔스의 특징과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새로운 성공 기회 및 인재상 제시

강의 개요

‘스마트폰은 학습의 장애물’이라는 생각은 2020년 온라인 개학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비대면, 언택트가 키워드로 떠오르자 스마트폰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학습을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는 물음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문명의 흐름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아이들과 디지털 문명이 낯선 교사가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상상을 해보자. 생각만으로도 답답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었다면 최재봉 교수와 함께 누구나 포노 사피엔스가 될 수 있다!



미래교육? 온라인 수업? 물음표를 느낌표로!

1학점

온수 칼칼!
온라인 수업이
터진다

조 기 성

박 준 호



신 민 철

박 건 민

이 민 영

강의 특징

- 100% 완벽한 이해를 위해 실제 강사의 온라인 수업 장면 제공
-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의 기본부터 응용 노하우 제시
- 1인 강의, 대담, 명사 최재붕 교수님과 인터뷰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

강의 개요 Coming Soon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걸어가며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에서는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온라인 수업에서 느꼈던 어려움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마트교육학회장 조기성 선생님이 나섰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부터 돌발상황의 대처법, 활용하기에 유용한 팁까지! 이제 첫발을 내디딘 선생님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매뉴얼, 지금 만나보자!



안내문부터 학습자료까지!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1학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파워포인트
필수 키트

김 세 나

강의 특징

- 업무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작 노하우 제공
- 실습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양식을 제공
-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강사의 작업 화면을 상세하게 제시

강의 개요 Coming Soon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면 당연히 학습자료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자료를 만들려고 보니 마음처럼 깔끔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각화 방법과 정확한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것! 하지만 본 과정으로 다양한 예시와 프로들의 시각화 노하우를 익힌다면?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드는 프로의 노하우, 미처 알지 못했던 기능들을 익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눈부신 학습자료를 만들어 보자!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다독인다, 유튜브 채널 <티쳐준호>

글. 서준호 광주효동초등학교 선생님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어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악기를 배우고, 어떤 선생님은 유튜브를 한다. 단지 좋아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부터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겐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길 즐거워하고, 주변을 긍정적 분위기로 물들이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 오늘은 그런 선생님 중 한 분을 만나보고자 한다. 심리치료와 집단상담이라는 전공을 살려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여러 영상을 기획·제작하며 유튜브 채널 <티쳐준호>를 운영 중인 서준호 선생님이다.

올 1월 1일부터 유튜브 채널 <티쳐준호> 운영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몇 년간 매주 1회씩 진행하다 유튜브로 넘어가겠다고 해놓고 멈췄다.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한 뒤 편집까지 쏘아야 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영상들을 작업하며 경험했고, 부모와 교사의 삶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 유튜브 활동 시작을 자꾸만 망설이게 됐다. 그러다 2020년 1월 1일, <티쳐준호>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 문을 열게 됐다. 삶 속 균형을 위해 2주에 3개의 영상을 올리는 패턴으로 6개월 정도 운영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3,000명 넘는 분이 구독을 눌러주셨고, 23만 이상의 조회 수와 1.5만 시청시간을 달성했다. 25~54세의 여자 선생님들이 주된 시청자층이다. 그리고 그동안 학급운영과 교사 심리 그리고 놀이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왔다.

선생님의 마음 다독이고 어려움 줄여주는 영상 제작

무엇보다 내 전공인 심리치료와 집단상담을 살려 선생님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려



약력 서준호

- 現 광주효동초등학교 교사
- 사람과교육연구소 치유성장소장
- 티쳐빌 고학년 학급운영 원격연수 운영
- 저서 『서준호 선생님의 교실놀이백과 239』, 『그러니까 고개 들어』, 『6학년 담임해도 괜찮아』 등 다수



움을 줄여주는 쪽의 영상을 제작하고자 했다. 특별한 기법과 효과보다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고자 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분노를 조절하도록 하는 노하우, 욕설하는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 학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해결하는 방법, 차분한 아침 독서 시간을 만드는 노하우, 학부모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았다.

힘들 때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 얻어

영상은 주제를 정하기, 마인드맵을 그린 뒤 영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적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한다. 촬영 준비는 배경지를 설치하기,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하기, 모니터 스크린 결합, 마이크를 연결, 조명 설치 순으로 진행한다. 그런 뒤, 얼굴과 머리를 다듬고 의자에 앉아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른다. 준비하다 힘이 빠지기도 해 초반에 버벅대 몇 번이나 같은 장면을 찍어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때면, “마음을 울리는 영상입니다”, “위로가 되고 혼자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부분이 풀립니다”, “영상 덕분에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씩 해소됩니다”, “지쳐있던 영상을 보고 힘을 얻고 즐거워집니다.”라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보며 힘을 내고 더 위로와 격려를 담아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악기연주 등 내 삶의 일부를 담기도

현재는 가끔 촬영 도움을 주는 스튜디오도 생겨 감사하고, 유튜브 관련 일들에 요령이 생겨 어려움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 삶의 일부도 이곳에 담아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 악기 연주, 수업자료 만드는 모습 그리고 드론으로 찍은 우리 학교 모습 등을 브이로그에 담기 시작했다. 여전히 유튜브는 어렵고 시청자는 냉정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지만,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만으로 기쁠 듯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더 즐거운 삶과 성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1. 영상의 주제를 정하고 배경지를 설치한다.
2. 촬영을 위해 장비를 점검한다.
3.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모니터 스크린을 결합한다.

티처준호





"넌 마치 별똥별처럼 나의 우주를 가로질러와"

노래하는 선생님들의 콘텐츠 상자 '쌤드박스'(SSAM Des Box)

글. 노원준 무안 운남초등학교 선생님

음악을 하는 사람의 글은 어쩐지 노래 가사처럼 마음을 울린다. 글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처음 음악을 만나 설레고 고민하고 꿈을 꿔던 그 시절에 함께 서 있는 듯하다. 또 잠시 꿈을 내려 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는 우리네 평범한 모습이 겹친다. 하지만 선생님이 선택한 또 다른 길 역시 결국엔 음악이었으며, 이제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이어오고 있다. 음악도, 아이들도, 동료 선생님들도 어떻게 '그의 우주에 별똥별처럼 가로질러 왔을까?' 지금 만나보자.

녹음기와 MP3플레이어 - 음악과의 첫 만남

나는 음악의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악보는 그릴 줄도 모르고 단지 띄엄띄엄 읽을 줄만 알 뿐이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1. 이호준 선생님.

2. 김고은 선생님.



약력 노원준

- 現 무안 운남초등학교 교사
- 크래썸도 TV 유튜브 채널운영
- 3·4학년 1·2학기 과학 단원송 제작
- 5·6학년 1학기 과학 단원송 제작

데, 굳이 내가 음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은 음악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항상 고민하곤 한다.

나는 열일곱 살이 되던 겨울에 내가 가진 돈의 전부였던 13만 원을 털어 기타를 샀다. 악기점에서 고심해서 고른 첫 기타를 안고서 좋아하는 음악을 더듬더듬 따라치는 것으로 시작해 대학에 입학하던 스무 살에 동경하던 밴드를 하게 되었다. MP3플레이어로 듣던 벨벳 리볼버의 음악을 동아리방 지하에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나는 20대의 거의 절반을 습기 많은 낡은 소파에 앉아 대학을 졸업하면 선생님이 아니라 어느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될 것만 같은 꿈같은 기분으로 보냈다. 하지만 졸업하고 1년 후 함께 음악을 하던 친구들과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즉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범하거나 혹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낯선 첫 발령지의 한 원룸에 누워 낡은 TV에서 나오는 메탈리카의 공연 실황만 봐도 눈물이 고이던 이른 직장인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는 어떤 교직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이어폰에서만 맴돌던 음악이 - 노래를 만든다

나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이란 연고 없는 서해의 시골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광천이란 곳은 평소 느끼지 못했던 오감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렇게 홀로 타지 생활을 하며 낯설고 생경한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을 기록해 두고 싶었고, 그렇게 기록한 감정들이 아까워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때 만든 노래가 처음 만든 노래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노래로 쏟아내는 연습이 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때의 노래들은 내 입에서 나와 다시 내 귀로 돌아가는, 나만 들을 수 있는 노래였다.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교실에서 '전기뱀장어'라는 밴드의 〈별똥별〉을 들으며 일을 하다 불현듯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곡을 쓰기 시작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내 노래를 부르고 들을 것으로 생각하니 내 이야기를 쓰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가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 우리 반 아이들은 전기뱀장어의 노래 가사처럼 '나의 우주를 가로질러왔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첫 노래 〈별똥별〉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
우리는 친구이니까

때로는 서툰 말에 맘 상하기 해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우리 친구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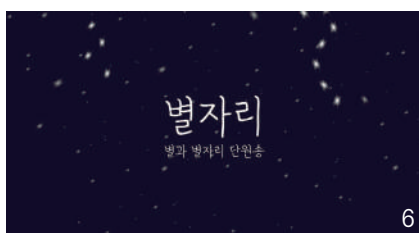
넌 마치 별똥별처럼 나의 우주를 가로질러와
넌 마치 별똥별처럼

너에게 닿기를 - 쌤드박스의 시작

첫 노래를 만든 뒤로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들을 계속 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반만 알고, 우리 반끼리만 부르는 노래를 만들었지만, 아이들이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정말 운이 좋게도 멋진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혼자였다면 분명 생각만으로 벽차 멈추거나 '그게 되겠어'라는 말에 쉽게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내 곁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전라남도예 근무하는 김고은·추국현 선생님과 광주예 근무하는 이호준·이지원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즐겁게 하자'를 신조로 선생님들의 콘텐츠 상자 '쌤드박스'(SSAM Des Box)라는 팀을 만들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의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다. 여러 방향을 논의 하던 차에 기존 학습 송 콘텐츠들을 보며 느꼈던 아쉬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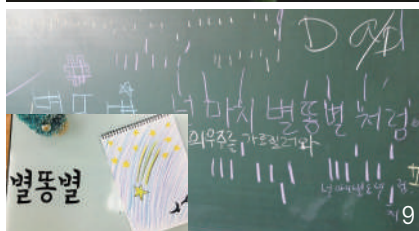
6



7



8



9

3. 노원준 선생님.

4. 이지원 선생님.

5. 추국현 선생님.

6. 5학년 1학기 3단원 태양계와 별
단원송 쌤네일.7. 6학년 1학기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송 쌤네일.8. 6학년 1학기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송 쌤네일.

9. 첫 반가 별뚱별 쌤네일.

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습의 내용이 끝났을 때 노래의 소비 또한 종료된다는 점이였다.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음악은 학습의 내용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학습 자체를 즐겁게 하고, 학습 내용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것이였다.

혼자 할 때와는 달랐다

이렇게 단원 송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노래들을 초등학교사 커뮤니티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했다. 많지 않은 조회 수와 댓글이지만 “공부하러 왔다가 노래가 좋아서 또 들으러 왔습니다”나 “과학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인데 노래가 좋아서 또 왔어요”와 같은 말들이 우리를 더 힘내게 했고, 학교 일과 다른 많은 일에도 20곡이 넘는 노래를 완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팀에서 나는 리더나 대표가 아니다. 나는 단지 음악을 만들 뿐이다. 어떤 가사가 좋은 가사인지는 함께 생각하고, 노래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교실에서 실천하고, 검토하는 더 큰 역할들을 도와주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다. 단지 노래뿐이었다면 이 전과 마찬가지로 이 노래들은 다시 내 아이폰을 뺄았겠지만, 이 노래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였다. 혼자 할 때와는 달랐다. 장기 말이나 바둑판 위의 돌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인데도 시간을 쪼개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깨닫게 된 것은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의우주를 가로질러 오다

녹음기와 MP3플레이어의 이어폰에서 뻗던 음악이 아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노래를 만든 지 어영부영 10년이 넘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노래는 200곡이 넘어간다. 오늘 만든 곡이 내일이면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많은 고민 후에 만든 곡임에도 정말 별로라고 느껴질 때가 더러 있었다. 또 내 노래가 감탄스러울 때보다 재능이 없는 일에 노력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기약 없는 일인지 느낄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따금 나의 제자들은 노래를 타고 별뚱별처럼 나의 우주를 가로질러오곤 한다. 이럴 때, 내가 처음 음악을 선택한 날이 떠오르며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①



동화책 읽고, 유튜브 영상 보고, 색칠공부도 하다 보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쑥쑥!

전래동화 컬러링북, 세계명작 컬러링북

기획, 최경일

그림, 공귀영·이임하

출판사, 테크빌교육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과 정서에 관심이 많은 최경일 선생님과 그림을 그리며 힐링의 시간을 즐기는 일러스트레이터 공귀영·이임하가 만나 『전래동화 컬러링북』과 『세계명작 컬러링북』이 탄생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부와 놀부』부터 『토끼전』, 『도깨비 방망이』, 『방귀쟁이 며느리』, 『호랑이와 굴감』, 『쇠불이를 먹는 불가사리』 등 14편의 전래동화와 『백설공주』, 『아기 돼지 삼 형제』, 『해와 바람』, 『빨간 모자』, 『어린 왕자』, 『정글북』 등 14편의 세계명작 동화를 충실히 담았고, 관련 영상(동영상 QR코드 탑재)을 보며 색칠공부를 직접 해볼 수 있다. 열심히 보고 그리다 보면 어느새 창의력과 집중력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14편의 전래동화&세계명작 동화 장면 색칠공부를 마치면, 한 권의 컬러링북이 완성됩니다.

* 학생,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좋아하는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힐링 되는 마음은 덤!



그들에겐 내-일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저자. 신건철, 정재석, 안미영, 왕건환, 이상우
출판사. 테크빌교육

교사를 둘러싼 학생·학부모·관리자·동료·교권 등 5가지 영역 안에서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담았다.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쌓아온 다섯 명의 저자들은 '어떻게 힘든 교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와 교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믿고 기다려 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6개월간 매주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 자신들의 경험과 솔직한 생각을 풀어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

저자. 김요섭 외 7인
출판사. 테크빌교육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쟁점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 공간에서 학생이 가진 주체성, 시민으로서 학생이 가진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그간 교육계에서 활발히 이뤄졌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전히 '주어진' 정치권 권리를 학습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이 만 18세 선거권 도입이라는 사건인 셈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현재 '학생자치'라는 공통항으로 묶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결국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자치'라는 틀을 통해, 학생과 정치라는 두 항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부록으로는 학생자치와 관련된 모든 시·도 조례를 수록해 제도적 현실 인식과 더불어 객관적 이해를 돕는다.

리얼 초등 교사 생존기 섬섬한 라이프

그림. 송정섭
춘천 호반초등학교 선생님

열심히 하자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철삼

원격 수업 준비!

영상 편집!

강의도 직접!



철삼
정말 멋져요!

능력자예요!

하하
별말씀을요

역시 대단해!

어떻게
하는거야~?





SNS를 통해 웹툰을 그리는 초등교사 송정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라이프'를 연재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교사를 위한 콘텐츠도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섭섭한 라이프



육아, 다들 이렇게 힘든가요?
저만 그런 걸까요?

이제,
부모공감 1:1 육아코칭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검사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진행방식

온라인 검사
+
육아코칭(전화상담)

소요시간

영유아 검사 15분
+
전화상담 50분

모바일검사

- 모바일로 검사도 편하게!
- 결과도 빠르게 확인!
- 검사 소요: 약 15분



육아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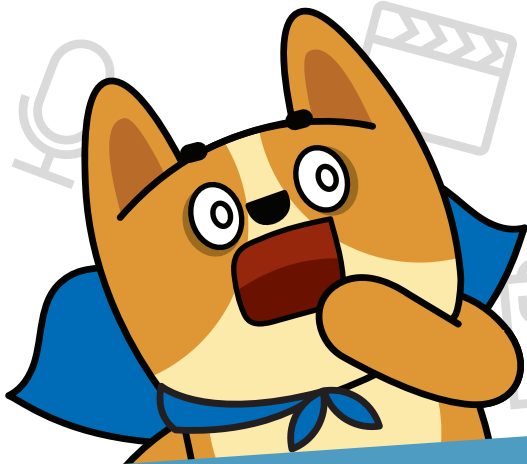
- 쓱쓱! 콕콕! 짚어주는 결과상담!
-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자세한 결과상담을 받아보세요.
- 전화상담 50분

* 본 서비스는 부모자녀관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코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진행 후 이용 가능합니다.



1:1 육아코칭으로 든든한 육아 지원군을 만나보고 싶다면?
문의 1644-7429 www.bumo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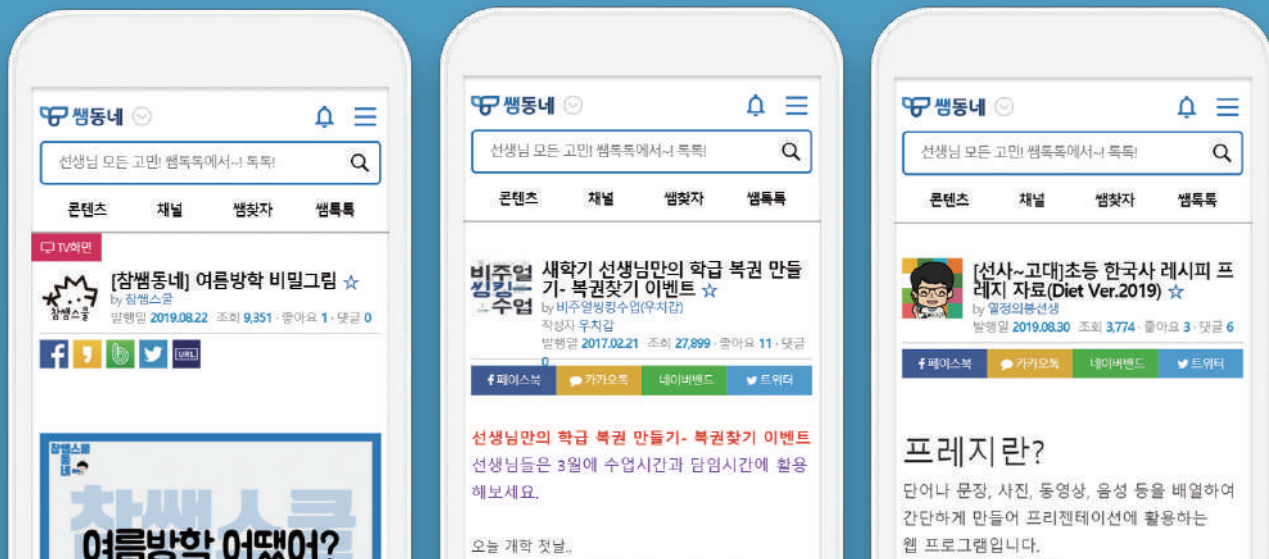


수업자료 저작권 걱정 마세요!

쌤동네면 저작권 단번에 해결!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교원 자료 플랫폼

학습지도 자료부터 교과지도, 학급운영 자료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개학 자료
걱정없이 쌤동네로 찾아오세요.
선생님을 위한 자료 플랫폼

바로가기 >

쌤동네



👉 티처빌연수원

👉 쌤동네

👉 티처몰

👉 키즈티처빌

👉 즐거운학교

👉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



바다

바다